

참된 생명의 빛이 세상에 도래했음을 알려 줍니다. 따라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선물과 은총을 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러한 감사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받을 생각에 들떠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성탄을 기다릴 수 있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성탄 교리에서는 『겨울바람이 실어온 성탄』이라는 도서를 활용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성모님을 통해 세상에 탄생하셨음을 말해 줄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 사건을 간략하게 담고 있지만, 교사가 성탄 일화를 좀 더 자세히 준비해 알려 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시작 기도**

고마우신 하느님, 저희를 위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느님을 닮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도입**

인사-안부 주고받기	우리 친구들, 즐거운 한 주 보냈나요? 선생님은 추위를 무척 싫어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두꺼운 양말에 털 부츠까지 신어도 추위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나 출근지 옆에 있는 친구 옷마저 빼앗아서 입고 싶을 정도였더니깐요.
흥미로운 이야기로 수업에 초대하기	그런데 선생님과 달리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 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며칠 전 퇴근길이었어요. 전철역에서 어떤 노숙자 아저씨가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었어요. 모두들 그 아저씨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갔어요. 선생님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집에 얼른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서 노숙자 아저씨에게 돌려 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을 주는 사람은 가끔 봐어도, 할아버지처럼 목도리를 벗어 주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추위도 잊고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할아버지시구나!' 라고요.
그림 책 소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보여 주셨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읽어 주는 이야기 잘 들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 학습목표**

-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세상에 오셨음을 알 수 있다.
-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다.
- 성탄을 기다리는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준비물**

- 그림책 『겨울바람이 실어온 성탄』(글·그림 크르미 유키, 옮김 심재영, 성바오로, 2004년)
- 만들기 재료 : 흰색 종이 접시, 가위, 풀과 반쪽이 가루(또는 반쪽이 풀), 색연필, 색 사인펜, 펀치, 리본 끈, 카드 봉투, 두꺼운 종이, 노란색 색종이, 스파핑(잘게 자른 종이)

**■ 들어가는 말(교안을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본 교안은 초등부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탄'이란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전개

### 1. 수업의 이해를 돕는 그림책 이야기 『겨울바람이 실어온 성탄』

#### 〈책 내용 소개〉

고양이 ‘벨’은 바람의 안내로 나자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기를 가질 것이며, 그 아기는 ‘예수’라고 불릴 거라고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날 무렵,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이름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떠나야 했어요. 벨도 같이 여행을 떠났지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베들레헴에는 빈방이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벨은 빈방을 찾아 헤매다 두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들판에서 양치기들을 만났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의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커다란 별이 머무는 곳에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려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양치기와 벨은 별을 따라갔어요. 별이 비치는 마구간에는 귀여운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 곁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어요.



#### ★이야기 주고받기

※아래의 질문을 모두 활용해도 되고, 몇 가지 질문을 추려 심도 있게 나누어도 됩니다.

#### □ 내용 확인

-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을 구할 수 없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서 묵기로 했나요?
- 양치기들에게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알려 준 것은 누구였나요?
- 양치기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무엇을 알려 주었나요?
- 양치기들을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께 안내해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 양치기들이 다녀간 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달려온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 □ 추론

- 천사가 찾아와 아기를 가질 거라는 말을 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큰 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양치기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세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무척 행복했어요. 춥고 불편한 곳에서 아기를 낳았는데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추운 겨울에 깨끗하지도 않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 □ 생활 적용

-예수님께서 좋은 집에서 부자로 태어나 편안하게 살지 않으셨던 이유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가까이에서 보살피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닦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	선생님이 읽어 준 그림책 이야기를 들어 보니,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있었죠?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성모님이 아기를 갖게 될 거라고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성모님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런 일 못해요. 안 할래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모두 잘 알다시피 그때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는 건 아주 큰 죄였잖아요. 성모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성모님의 믿음	그래요, 성모님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일을 시킬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믿고 따를 줄 알아야 해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많이 사랑하시며,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 뿐인 소중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니까요.
성탄 맞이하기	여러분, 그러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그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안으로 오시어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닦기 바라세요.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럼 각자 아기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말해 볼까요?(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만들기 소개	성모님께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과 양치기들에게 구세주 탄생을 알려 준 것은 누구였나요? 그래요, 천사였어요. 천사가 성모님과 양치기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어린이가 된다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쁜 천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선물해 봐요.



## 2. 재미있는 활동

### 1) 천사 만들기

#### □ 준비물

흰색 종이 접시, 가위, 풀과 반짝이 가루(또는 반짝이 풀), 색연필, 색 사인펜, 펀치, 리본 끈

#### □ 방법

- ① 종이 접시를 사진과 같은 모양으로 자른다.
- ② 안쪽에 천사 그림을 그린 후 색칠한다.
- ③ 반짝이 가루나 반짝이 풀을 이용해서 날개를 예쁘게 꾸민다.
- ④ 윗부분에 펀치로 구멍을 뚫은 다음, 리본 끈을 끼워 고리를 만든다.
- ⑤ 완성. 뒷면에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글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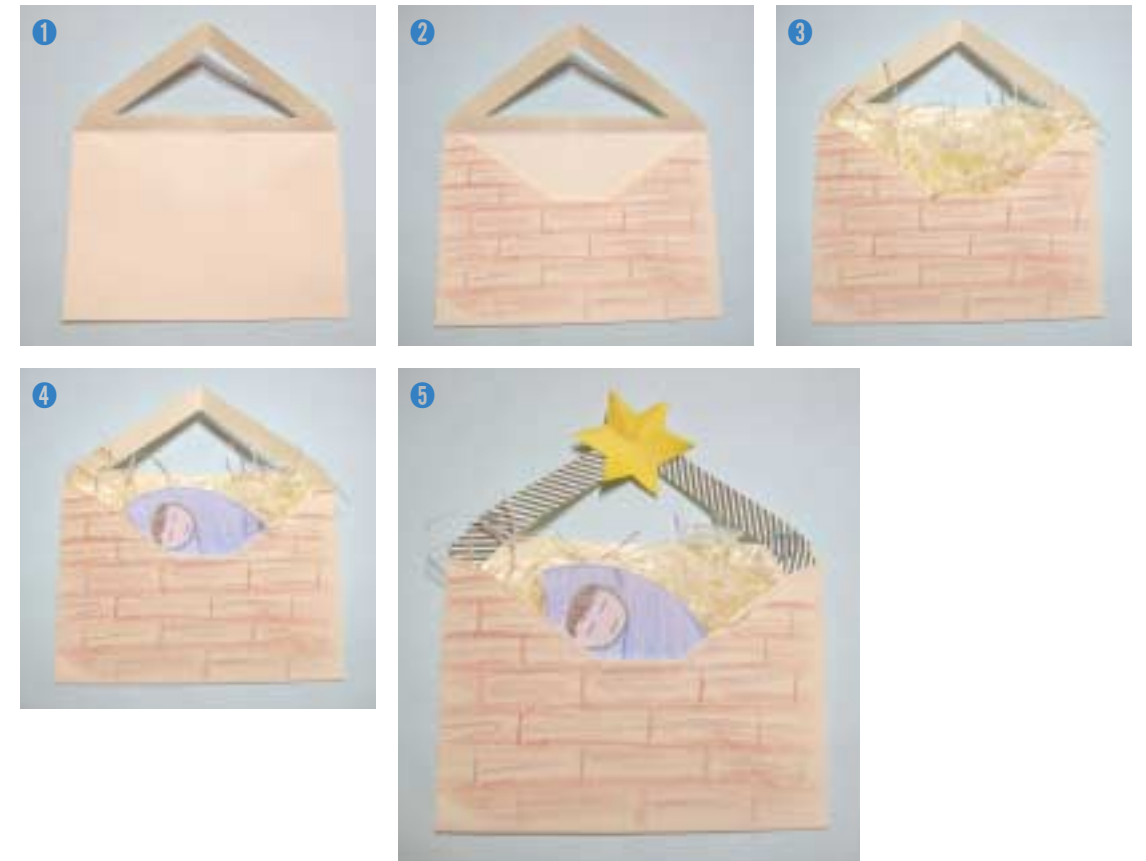
### 2) 구유 만들기

#### □ 준비물

카드 봉투, 두꺼운 종이, 노란색 색종이, 스파핑(잘게 자른 종이)

#### □ 만드는 방법

- ① 카드 봉투의 덮개 부분을 사진과 같이 자른다.
- ② 봉투를 구유 모양으로 색칠한다.
- ③ 봉투 안쪽에 스파핑을 넣어 붙인다.
- ④ 두꺼운 종이에 아기 예수님을 그린 다음 잘라서 스파핑 위에 붙인다.
- ⑤ 노란색 색종이를 접어서 별 모양으로 올려 붙인다.(봉투가 얇아서 찢어지기 쉬우므로 봉투 덮개 부분에 두꺼운 종이나 굵은 스카치테이프를 덧대 붙인다. 완성된 구유를 성탄 카드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정리

수업 정리 및 다짐

오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신 이유와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려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이웃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던 천사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마침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 곁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도 하느님 말씀을 잘 따르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저희 곁에서 도와주세요. 아멘.

김두심\_엘리사벳  
독서교육 전문가, 북아트 전문가, 서울대교구 도림동과 월계동 성당에서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6년 동안, 지구 월례교육 강사로 1년간 봉사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으로 활동했다.